



이수 사보 100호 기념 사보
2020 SPRING VOL. 100



100th
ISSUE
CELEBRATION

이수가족의 진솔한 사랑과 삶의 이야기

이수가족

일천구백구십육년 · 창간호

COVER STORY

1996년 <이수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수 사보가 마침내 100번째 사보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00호 특집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이수가족 여러분과 사보 <ISU>입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따뜻하고 기분 좋은 24년의 추억을 만나 보실까요?

1 to 100

ISU 사보를 보면
이수그룹이 보인다?
표지에 담긴 이수 사보의 역사

24 years, 288 months,
207360 hours
숫자로 보는 사보 24년

사보기자의 세계
전격 공개!
좌충우돌 사보 제작 후기

옛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이수 사보 추억의 책장을 넘기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열일곱 권의 책

책에서 발견하는 시대의 지혜



Contents

01

Cover story



이수 사보 100호 기념 사보

이수그룹 계간 사보 2020년 봄호 통권 100호

발행일 2020년 5월 10일

발행인 김상범

발행처 (주)이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84

총괄진행 구혜현 02-590-6658

사보기자 이수화학(이정구·김태준) 이수페타시스(이준경·김다혜)
이수건설(한수진) 이수시스템(김용훈) 이수창업투자(김경문)
이수엔지스(박에스터) 이수엑사캠(박수영) 이수엑사보드(김슬기)
이수C&E(김현주) 이수AMC(이홍휘)

제작디자인 크리스마스 기획실장 우인재, 디자이너 조현경

인쇄 캠프로세스

본지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수그룹의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해당 필자들의 견해이며, 이수그룹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판 표지는 100번의 발행을 통해 이수인들을 하나로 이어준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06

100th ISSUE SPECIAL

06 축하

사보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08 Infographic

숫자로 보는 이수 사보 24년

10 History ❶

이수 사보 표지 변천사

16 History ❷

이수 사보 베스트 콘텐츠

22 추억의 책갈피 ❶❷

시 속으로 떠나는 여행

빨간 카네이션

24 Editorial Room

사보기자들의 후일담 라이브

30 추억의 책갈피 ❸❹

문화스케치

우리 가족 사진첩

32 CEO가 권하는 책

책에서 발견하는 시대의 지혜

38 추억의 책갈피 ❺

권두칼럼

39

INSIDE

40 Focus & News

44 리더의 책장

김상범 회장 추천 도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46 커뮤니케이션 Talk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50 팀업뎀뎀

이수엔지스 국내사업팀

55 이수타그램

사진과 해시태그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OUTSIDE

58 이수 테이블

JMT 봄맞이 점심 메뉴를 추천합니다

62 스페셜 리포트

종이 사보의 미래, 콘텐츠에 달려있다

67 마이레알트립

블링블링 새봄에 떠나고 싶은 핫 플레이스

74 이수의 PICK

김연아에서 팬수까지, 2010 컬러 키워드

79 Ombudsman

80 퀴즈 및 엽서

사보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생각합니다

벌써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6년 3월, <이수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간을 시작한 사보가 2020년 5월로 100호를 맞았습니다. 당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매체'가 되길 기대하며, 임직원 모두가 사보와의 첫 만남을 손꼽아 기다린 기억이 납니다.

“사보는 모든 이수인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창간호에 실린 사보의 다짐입니다. 지난 20여 년 세월 동안 이수그룹 사보는 <이수가족>에서 <ISU>로 제호가 변경되고 표지와 콘텐츠 또한 새로운 감각으로 바뀌는 등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바로 '사보의 지면은 모든 직원을 위한 소통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이수그룹 사보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간 사보는 서울과 울산, 대구 등 국내 사업장은 물론 해외 곳곳에서 일하는 이수인들이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안부를 묻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살갑고, 때로는 가족처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서로의 일하는 모습과 자연스러운 일상까지도 사보를 통해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질의 정보를 엄선해 보여주는 '큐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이수 사보는 각 계열사의 소식은 물론, 세계 석학들의 통찰력과 지식을 공유하고 우리 사업 분야와는 다른 동향을 전달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왔습니다.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거나 새로운 이슈로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 또한 사보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전의 어느 세대보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한번 시작한 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나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보 100호 발간이 더욱 반갑고 뜻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보가 어떤 형태로 진화하든 사보 <ISU>의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보를 통해 이수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 이수그룹의 화두를 공유하고, 좋은 정보를 심는 일은 변함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사보 <ISU>가 앞으로도 많은 독자들에게 기다림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길 바라면서, 100호를 맞이해 사보를 아껴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보 기사를 포함해 제작에 힘써주신 역대 사보 담당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수그룹 회장 김상범




숫자에 담긴 이수 사보 이야기

혹시 그거
아세요?

**24 years, 288 months,
207360 hours come to 100 issue**

이수가 만난 사람들 1996~2009

소설가에서 골프선수까지

소설가 10명 | 배우 9명 | 무형문화재 5명
시인 7명 | 골프선수 5명 | 의사 3명 | 가수 2명
야구선수 2명 | 작가 2명 | 사업가 2명
연출가 1명 | 인형작가 1명 | 한의사 1명
화가 1명 | 공연예술가 1명 | 사업가 1명

53명



제본에 사용된 종이
4×6전지 **500,000장**



세로로 이어붙이면
1,350,000m이며,
에베레스트산(**8,848m**)의
약 **153배** 높이

지면에 인쇄된 활자의 갯수

8만 대장경을 **32번** 간행할 수 있는 양

약 2,573,200자



인쇄에 사용된 잉크의 양



2,150ℓ

2리터 용량의 페트병
1,000개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양

이수인



임직원 83명 | 계열사 팀 41팀
사내 동호회 12팀 | 취미생활 61명
※ 팀 및 동호회 포함

197명

24년 동안 소개된 전 세계 여행지

76곳

국내 43곳 | 해외 33곳

한국 | 43

해외 | 유럽 7, 동남아시아 11
타이완 1, 홍콩 2, 일본 4
중국 1, 러시아 2, 멕시코 1
뉴질랜드 1, 미국 3



ISU MAGAZINE COVER in 1 to 100

이수 사보의 얼굴, ‘표지 변천사’

1996년 창간호에서 2020년 신년호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의 기간을 두고 변화해 온 표지와 제호는 이수 사보의 아이덴티티를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진과 회화, 몽타주 기법 그리고 일러스트까지, 90년대에서 밀레니엄을 거쳐 2020에 이르는 얼굴의 변화를 살펴본다.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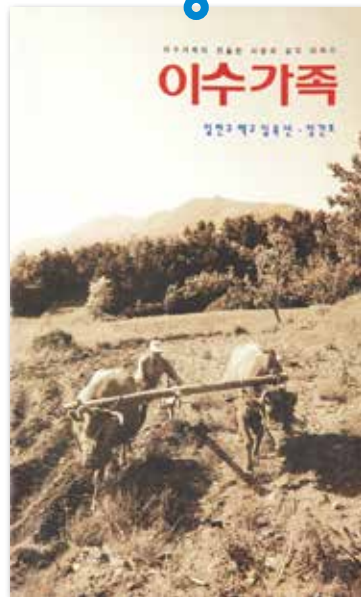
이수 사보는 1998년 신년호부터 새로운 판형(국판 148×209mm)으로 제작되었으며 우리 민화인 ‘까치호랑이’와 함께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1996



1996 창간호

1996년 3월에 발간된 창간호는 전원 풍경을 사용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진하게 묻어나도록 했다.



1998

2001



2001

깨끗한 흰 바탕에 새싹, 해바라기, 단풍 등 사계절을 상징하는 정물을 넣어 세련된 느낌을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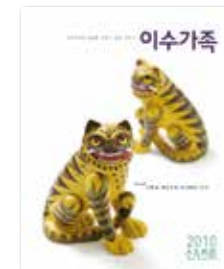
2002

월드컵 4강의 해, 현대미술 회화 작품을
이용한 모던한 감각이 돋보인다.



2010

십이간지의 호랑이, 이수그룹 야구대회,
이수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등 시즌별
이슈를 표현했다.



2005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닭의 해인 2005년에는
연하고 부드러운 색조를 띤 일러스트를 도입했다.



2012

임진년 용의 해 겨울에 발행된
첫 번째 사보에는 임직원들이
적어 내려간 소망을 표지에
녹여냈다.



이후 사진을 이어붙인 몽타주 기법,
이수 그린 컬러의 팬톤 넘버(347C)
등으로 변화를 꾀했다.



2013

임직원과 가족 사진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따뜻한 감성을 표현했다.



2018

실사 이미지와 일러스트를 결합해
임직원들의 취미생활을 보여주면서
'워라밸'이라는 시대의 변화상을
짚어냈다.



2018

2019

2020



이수 사보와 나이가 같은
이수그룹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특별판 표지.



2016

사각사각 연필로 그린 듯한 부드러운
일러스트로 친근한 느낌을 표현했으며,
제호가 '이수가족'에서 'ISU'로 변경됐다.



2019

이수그룹의 모체가 된
이수화학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에디션.

2020
24년 세월이 오롯이 담긴
100번째 사보는 특별히
창간호 표지를 넣은
속표지까지 제작했다.



베스트 콘텐츠

Best
CONTENTS

100번의 발행을 이어오는 동안 이름이 바뀌거나 잠시 쉬어가는 했어도 변함없이 사보를 지켜온 콘텐츠들이 있다. 이수그룹 안팎의 소식을 전달 해온 포커스&뉴스를 비롯해 각 계열사의 팀과 팀원들을 만나는 팀업뽀뽀, 그리고 국내외 아름다운 여행지로 떠나는 마이 레알 트립에는 이수가족의 현재와 과거가 오롯이 스며있다.

목차, 독자를 위한 예고편

표지가 사보의 얼굴이라면 목차는 독자를 위한 예고편 같은 것이다. 이수 사보의 목차는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수 사보의 변화상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페이지이기도 하다. 표지를 넘기면 곧바로 눈에 들어오는 목차 옆에는 서정적인 시가 새겨지거나 포토에세이가 실려 독자를 활자의 세계로 불러들이는 초대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



뉴스, 이수人 앤 아웃

20년간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이어져 온 거의 유일한 콘텐츠가 바로 뉴스 코너다. 이수그룹 안팎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선별해 전달해 온 뉴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룹의 발전상은 물론 이수가족의 사회 공헌 활동 같은 흐뭇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뉴스라인 • 1999년 제1호

이수그룹 제3기 공채 신입사원의 연수과정, 이수화학 창립 30주년 기념식 그리고 도서출판 이수의 제3회 21세기문학상 수상작품집 발간 소식이 게재됐다.



이수 인사이드 • 2005년 신년호

2005년 새해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이 여럿 이어졌다. 이수화학 온산공장이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는 한편, 이수시스템의 농촌진흥청 전산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다.



탐뉴스 • 1996년 창간호

창간호 뉴스에는 이수그룹의 첫 번째 사보 발행에 대한 소식과 함께 이수화학의 베트남 현지 기업 제휴 및 경제정의기업상 수상에 관한 내용이 독자들에게 전해졌다.



이수 뉴스 • 2003년 신년호

책머리에 실리던 뉴스가 사보 끝자락으로 옮겨졌으며 꼭지명 또한 이수 뉴스로 변경됐다.



포커스&뉴스 • 2016년 신년호

페이지 구성이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게 개편되었으며 2003년 이후 10여 년 만에 뉴스 콘텐츠가 다시 사보의 전면으로 배치됐다.

종이 위로 떠나는 세계여행

여행 기사는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 중 하나로 꼽혀왔다. 1997년 1월에 게재되기 시작한 '길 따라 밋 따라'에서 '마이 레알 트립'까지 꼭지명은 바뀌어도 이수가족들에게 여행은 곧 힐링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비경까지 지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사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여행 콘텐츠부터 펼쳐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심이 있는 여행 • 2010년 신년호

이수화학이 위치하는 울산의 간절곶. 2010년에는 사진 위주의 구성으로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었다.



마이 레알 트립 • 2019년 봄호

지나해 또 한 차례 개편을 단행한 여행 코너. 여행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SNS, 먹방 등의 트렌드에 맞춰 여행지를 다양화하고 있다.



길 따라 밋 따라 • 1997년 제2호

1997년에 두 번째로 발행된 사보에는 충청남도 금산군의 '금산장과 십이폭포'의 겨울 여정이 게재되었다. 직접 찾아갈 독자를 위해 삽화 형식의 지도까지 들어가는 꼼꼼함이 돋보인다.



몸도 마음도 힐링 • 2016년 여름호

2016년 '몸도 마음도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꼭지명이 변경된 여행 기사를 통해 이수가족은 우리나라 곳곳의 비경들을 목격했다.

팀워크로 만나는 그때 그 사람들

사보의 주요 독자인 이수인은 물론 그 가족들도 손꼽아 기다리는 콘텐츠. 사내에서 매일 마주치는 동료의 이야기이자 배우자 혹은 자녀들이 가족의 직장에 대해 자세히 보고 들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시대별로 변하는 이수인들의 패션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점이다.



우리 부서 최고 • 1998년 제1호
98년 제1호에는 종합 생산성 향상 운동을 주도했던 TPM사무국 팀원들이 소개됐다. 인쇄회로기판(PCB)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이수전자는 이수페타시스의 전신에 해당하는 계열사다.



부서탐방 • 1996년 창간호
이수세라믹 신규사업팀 3인의 끈끈한 팀워크를 다루었다. 재밌는 것은 지금과 달리 팀원 각자의 프로필을 생년월일, 취미, 특기 등을 게재해 마치 당시의 연예잡지를 보는 듯하다.



현장에서 • 1999년 제1호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에는 '현장에서'라는 이름으로 꼭지명이 변경되었으며, 신속하고 성실함으로 뚝뚝 뚫린 이수화학 온산공장 공무부 계전2과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우리 팀 최고 • 2012년 봄호
한동안 휴지기에 들어갔던 팀 인터뷰는 2012년 '우리 팀 최고'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 13인의 이수앱지스 신약개발팀을 전격 인터뷰한 기사는 마치 경제 매거진을 보는 듯 새로운 구성이 돋보인다.



우리팀 사람들 • 2001년 여름호
지면이 3페이지로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자유분방한 포즈로 메인 사진을 촬영한 점이 돋보인다. 초기 4~6명이었던 인터뷰 팀원들도 점차 늘어나 2001년 여름호에는 무려 11명에 달하는 이수페타시스 ERP 추진팀 팀원들이 등장한다.



팀업뽀뽀 • 2019년 봄호
지난 2017년 'Show me the 팀웍'으로 코너명을 변경하면서 지면은 5페이지로 늘어나고 디자인 역시 현재의 포맷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2019년 봄호부터는 코너명이 '팀업뽀뽀'로 변경됐다.

마 음

- 광재구

아침 저녁
방을 닦습니다.
강바람이 쌓인 구석구석이며
훈냄새가 솔솔 풍기는 벽도 닦습니다.
그러나 매일 가장 열심히 닦는 곳은
꼭 한 군데입니다.
작은 창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떨어지는 그곳
그곳에서 나는 움켜쥔 결레 위에
내 가장 순결한 언어의 숨결들을 쏘아 붓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와 앉을 그 자리
언제나 비어 있지만
언제나 짙게 있는 빛나는 자리입니다.

1996
창간호
vol.1
p. 02

시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이수 사보는 1996년 3월 발간된 창간호부터 문학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있는 따뜻한 책이었다. 기업인이자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소설가였던 고(故) 김준성 이수그룹 명예회장의 영향으로 페이지 곳곳에 사보의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시와 산문이 실리고는 했다. 특히 창간호 첫 머리에 게재된 광재구 시인의 '마음'은 이수인들에게 햇살처럼 따뜻하고 빛나는 간행물이 되고자 했던 이수 사보의 바람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내 기억 속의 가장 큰 사람

- 차현주 사원(이수건설)

첫사랑의 추억이 가슴 속에 진한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남듯이 나는 내 삶에 있어 첫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는다. 내가 입학한 초등학교는 강원도 홍천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진 시골의 '역전초등학교'였다.

...

눈이 많이 내린 겨울에는 도시락이 올려진 난롯가에 둘러앉아 선생님께 옛날 이야기를 듣던 동화같은 추억도 있다. 또 동네 인심도 좋아서 결혼이나 상을 당한 집안이 있는 날은 모두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가 잔치국수와 떡을 얻어먹었다.

...

선생님의 기억에선 내가 수많은 제자 중의 하나로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나의 기억 속에선 가장 큰 사람으로 남아, 지치고 힘들 때 기억 저편에 간직한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삭막해지려는 내 자신을 추스르게 된다.

1997
5월호
vol.8
p. 11~15

빨간 카네이션 그리운 나의 선생님

1997년 5월호에 실린 특집기사 '빨간 카네이션 - 그리운 나의 선생님'에 실린 이수가족의 글 두 편이 눈에 띈다. 임직원이 직접 세내려간 감성 뽐뽐한 글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진한 그리움이 듬뿍 묻어나고 있다. 글을 따로 모아 책으로 엮어 펴내도 될 정도로 필력도 준수하다. 마침 이수 사보 100호가 출간될 무렵에는 스승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내 기억 속의 가장 큰 사람'이라는 제목처럼 인생의 선배이자 유년의 벗이었던 그리운 선생님을 추억해 볼까.

100th
ISSUE
CELEBRATION

Editorial Room

14인의 ISU 사보기자

톡·톡·톡

기자들의 후일담 라이브

사보 <ISU>는 각 계열사에 소속된 사보기자의 손길
이 모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뉴스를 작성하고 인
터뷰할 인물을 섭외하는 등 매호 다양한 방식으로 사
보 제작에 기여하고 있는 그들에게 100번째 사보의
발행은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 14인의 기자들이 들
려주는 흥미진진한 사보 제작의 후일담을 들어볼까?



(주)이수 이진우 사원

“

손끝의 이야기가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 특별한 경험. 사보기자 활동은,
손끝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와 정보들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특별한 시간이고 추억이었습다.

”

(전)이수건설 사보기자 이진우 사원입니다. 사보기자 활동을 시작하고,
첫 기사를 쓰게 되었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많이 긴장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고서나 메일이라면 누군가 읽고 난 뒤에 수정하거
나 조정하는 등 보완이 가능하지만 인쇄되어 나온 사보는 돌이킬 수 없
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요즘 글이라는 것을 쉽게 쓰고 쉽게 수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의 글과
정보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중에, 혹여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지워지지 않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기록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

여태 사보 제작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공장 사진 촬영 때랍니다.
해 질 무렵 이수화학 본산공장을 촬영하는 순간이었는데요, 해가 떨어지지 얼마 안돼
블로그에 올릴 해의 기운이 남아 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플랜트 설비가 어우러진 모습은
아름답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정말 예뻐했습니다. 사보기자가 아니었다면
물론 아름다운 풍경이죠.

”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화학에서 사보기자를 맡고 있는 인사팀 이정구
과장입니다. 햇수로 10년째 사보기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
보가 계간지로 발행되고 있어 꼽아보니 어느새 제작에 참여한 사보만
해도 30권이 넘더라고요. 인사팀에 있는지라 직원들에 관해서는 제법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기
획 테마에 맞는 직원을 추천하고자 섭외하는 과정에서 해당 임직원이 이런 취미와 관심사가 있었나 싶어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사보기자가 소소하게 느끼게 되는 재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보가 임직원
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더욱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길 바라며 사보가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이수화학 이정구 과장



이수화학 김태준 대리

“

지금까지 제작에 참여한 사보들 중에는 아무래도 제가 소속된 이수화학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간했던 95호 사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회사생활을 하며 무언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사보기자 일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이수그룹 가족들과 계열사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

사보를 통해서 누군가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 제가 이수가족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된 것 같아 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듣고 전달해 더욱 풍성한 사보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페타시스 사보기자 경영지원팀 이준경 사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제가 사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제작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매 호 여러 주제에 적합한 임직원들을 직접 섭외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상상대로 사보에 담겨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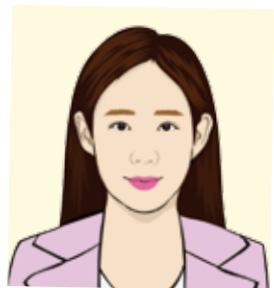
이수페타시스 이준경 사원

“

1년에 4번, 제작이 완료된 사보를 들고 배부할 때면 바쁘게 일하던 사람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사보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여유의 시간을 가지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아마도 사보를 통해 그룹 전체의 소식을 접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항상 좋은 사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임직원 및 브랜드전략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이수인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물론 저 또한 사보가 모두를 위한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소식 많이 전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김다혜 사원

“

누구나 살다보면 모든 것이 일상처럼 무뎌져 설레는 마음이 점차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보기자를 시작하게 된 지금 처음 느끼는 설렘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네요.

”

안녕하세요. 이수건설 플랜트영업팀 한수진 대리입니다. 항상 센스 넘치는 사보를 통해 회사 소식을 파악하기도 하고, 공감하며 기쁘게 웃기도 합니다. 때론 진한 감동의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수가족이라는 소속감도 더 투철해진다고 할까요. 앞으로 사보기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즐겁게 활동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수건설 한수진 대리

“

한 마디로 사보가 조직생활 적응을 도와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시군별로 주제에 맞는 분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업무 외적인 사적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분들의 다른 면모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사보가 100호를 발간한다는 정말 오랜 시간 이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보기자를 맡아 제작에 참여한 지 어느덧 5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사보기자라는 역할 덕분에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친분을 쌓을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수시스템 김용훈 대리

“

지금까지 사보를 만들며 지내온 시간은 사보기자가 아니었다면 느낄 수 없는 값진 경험과 감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수그룹과 함께 나이를 먹은 사보가 100호 발간을 맞이했다니 감개무량하네요. 그동안 사보 제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조금씩 나누어 준 시간들이 쌓이고 또 쌓여 사보 <ISU>라는 결실로 맺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쁨을 이수가족 모두와 함께 하고 싶어요.



이수창업투자 김경문 과장

“

사보 <ISU>의 100번째 발간 축하 드려요!!

”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보기자를 맡은 지 어느덧 4년차가 되었네요. 작은 역할일지라도 이수앱지스의 소식이나 성과를 다른 계열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매호마다 사보 제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이수앱지스 박에스터 대리

“

사보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직된 글쓰기가 아닌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면서 잠시 쉬어 가는 듯해서 좋았어요. 또 이수엑사캠의 대내외적 활동에 대해 활발하게 글을 표현하거나 그밖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생각도 담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이수엑사캠 박수영 대리

2019년 한 해 이수엑사캠의 사보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는 틈틈이 짬을 내서 쓴 글이 이수그룹 전체가 보는 사보에 실리는 것에 작은 희열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 주고 이수엑사캠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보다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수많은 분을 맞이했지만 사보 100호가 나온 올해 봄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

3개월에 한 번 발행되는 사보를 반갑게 기다리는 이수가족들이 있어 저 또한 즐겁게 제작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100호 발간까지 함께 정성을 쏟을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수엑사보드 심경미 과장

“

지난 가을호 이수타그림에 '반려견과 함께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회사 동료의 사연이 사진과 함께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노년이었든 노년이 다가오지 않더라도 건네기 전 만들었던 추억을 우리들의 사보에 담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됐다면 고맙았던 동료의 맑은 가슴 뭉클했던 기억입니다.

”

100호 발행이라는 뜻 깊은 순간을 맞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열혈 독자인 사보기자로 매번 다양한 볼거리와 계열사 가족의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인 이수 사보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는 소셜 미디어 사이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보가 100년 그리고 200년 이수 가족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수엑사보드 김슬기 사원

“

사내 소식을 정리하는 과정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짚어보는 시간이에요. 이런저런 생각에 꼭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게 돼요.

”

사보에 실게 될 사내 소식을 정리하며 지난 몇 달간 무슨 일들이 있었나 돌이켜 봅니다. 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어떤 일을 할지 미리 짚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 맞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하는 생각을 하면, 괜히 혼자 웃음이 나기도 하고 다가올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레는 시간입니다.

“

매 분기마다 사보 만드느라 고생하시는 브랜딩전략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

회사 내 다양한 이슈를 기사로 작성하고 또 정성스럽게 제작된 사보에 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참 뿌듯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보를 받아 읽어보면 유용한 내용들도 많고, 각 계열사의 주요 행사와 이슈들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좋은 콘텐츠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AMC 이흥희 사원

센스 있는 자만이 봄을 입는다

패션에도 법칙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깔끔한 첫인상,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하다. 게다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야 하는 동료라면 편안함까지. 이 모든 것이 직장인의 패션 코디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포인트 코디 방식을 이용한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튀지 않으면서 세련돼 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색 계열의 옷에 보색의 넥타이(스카프)를 한다거나 흑백 줄무늬 셔츠에 검은 바탕의 흰색 물방울 넥타이와 검은색 바지를 코디하는 것이다.

...

직장 내에서의 옷차림은 특성상 정장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자율성을 강조한다 해도 서로에 대한 예의는 기본. 때문에 정장 스타일의 변형된 옷차림에서 멋을 연출해야 한다.

2001
봄호
vol. 24
p. 36~37

문화스케치 - 정보발전소

이수그룹은 지난 2001년부터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복장 자율화를 시작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이 복장 자율화를 혁신의 시작으로 여겼다고 한다. 이수 사보는 아침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는 이수가족 독자들을 위해 패션 코디법을 제시했다. 20여 년 전, 센스 있는 직장인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낯설기만 할 '압구정 디자이너 클럽', '메사', '구로공단 할인매장' 등 2000년대 추억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다.

곰돌이 가족 파이팅!

여름햇살이 창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일요일 오전, 4살 된 개구쟁이 아들 정범이가 나를 깨운다. “아빠는 잠꾸러기야, 일어나! 일어나!!” 하면서 흔들어 깨운다. 정범이 뒤에는 만삭의 배를 내밀며 도끼눈으로 찌려보는 아내의 무섭고도 간절한 눈빛이 있다.

...

큰 아들 정범이가 태어난 해는 황금돼지띠라 하여 길거리에 나가보면 임신부들 밖에 안 보였던 것 같았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 다가오는 8월이면 둘째가 태어난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백호랑이해로 좋은 해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다니 덩달아 기분이 좋다.

...

일이 힘들고 지쳐도 집에서 나를 반겨줄 아들과 아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고 콧노래가 나온다. 행복은 돈이 많다고 느껴지는 감정은 아닌 것 같다.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생각이다.

2010
여름호
vol. 61
p. 30~31

우리 가족 사진첩



이수 사보 애독자를 자처하는 장기근속자라면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로 ‘우리 가족 사진첩’을 꼽을 것이다. 2016년 제호 변경이 있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수가족’이라는 제호에 꼭 들어맞는 콘텐츠이기 때문. 우리 가족 사진첩은 주인공이 되었던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고, 지켜본 독자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직장에서 만난 또 다른 가족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와 계절의 변화 그리고 아름다운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책에서 발견하는 시대의 지혜

2016년부터 시작된 리더의 책장은 김상범 회장이 추천하는 인문과 경제, 경영, 역사 그리고 인류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관통하는 서적들을 소개해왔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울이며 때로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위로를 건네는 열여덟 권의 책. 그 속에는 깨달음과 감동을 나누고자 하는 철학적 고민이 깃들여 있다.

01

2016 신년호 vol.83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
애덤 스미스, 러셀 로버츠

나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외부적 요소들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직업, 사는 곳, 자동차, 통장잔고 등 지금 나는 내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치경제학자 이전에 위대한 도덕철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인간의 본모습을 일찍이 알아차렸다. 그는 **더 나은 삶, 잘되는 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옥같은 해답지를 책에 정성스레 담아냈다.

#교양 #인문학 #애덤스미스 #도덕감정론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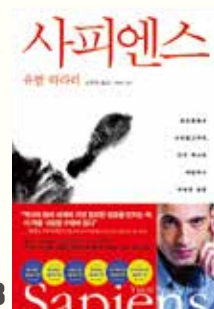
2016 신년호 vol.83

내가 공부하는 이유
사이토 다카시

일본 최고의 교육심리학자로 손꼽히는 메이지대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똑같은 실패를 겪어도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한다. 공부는 나무를 한 그루씩 심는 것과 같아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이득이 없을지라도 내면에 다양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생명력 넘치는 생태계가 형성되면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쉬이 꺾이지도 시들지도 않는 내공을 갖게 된다.

#교양 #인문학 #평생공부하는이유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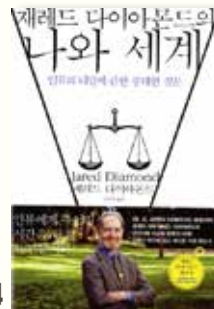
2016 봄호 vol.84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2015년과 2016년 전 세계 출판계와 언론을 들썩이게 한 책. **변방의 유인원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저자는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이 거대한 수만 년의 역사를 관통하여 인간의 진로를 형성한 것으로 세 가지 대혁명을 제시한다. 7만년 전의 인지혁명, 12,000년 전의 농업혁명, 그리고 500년 전의 과학혁명이 그것이다. **끝나지 않은 발견과 빈약한 사료들을 근거로 펼쳐내는 상상의 언어들은 놀랍도록 이성적이며 빈틈이 없어 독자들을 몰입하게 한다.**

#인문학 #인류학 #고고학

04



05



2016 여름호 vol.85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
재레드 다이아몬드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한 인터뷰에서 “지구멸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단지 1000년뿐이다.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이자 문명연구가인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고작해야 50년뿐입니다. 그리고 이 별을 망쳐 놓고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50여 년간의 인류가 처한 위기의 본질과 진실을 낱알이 파헤쳐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가 직면한 7가지 중대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인문학 #문명사 #총균쇠의저자

05

2016 가을호 vol.86

시를 읽은 그대에게 정재찬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시를 읽은 적이 없을 지도 모른다. 교사는 마치 경전을 대하듯이 주석을 덧붙이며 시를 읽고, 학생들은 그 주석을 열심히 받아 적고 암송하면서 시의 낭만과 아름다움과 진실들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 책은 평론의 언어를 그대로 답습하여 문학으로부터 독자를 소외시키고 마는 우리 문학교육의 엄숙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마치 축제를 즐기듯 문학을 향유하는 방법을 일러 준다.**

#문학 #에세이 #공대생도울린감성



06



07



08



06

2017 신년호 vol.87

무엇을 버릴 것인가

유필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대일수록 절대 바뀌지 않는 원칙 하나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영의 원칙, 조직과 기업을 살리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버림'이다.** 이 책은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역사 속 인물, 과거의 전장과 비견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업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살아남을 것인지에 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경제경영 #경영전략 #리더십

07

2017 봄호 vol.88

인생의 의미

테리 이글턴

테리 이글턴의 수많은 저작 중 <인생의 의미>가 역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서양 지성사의 방대한 철학적, 문학적 유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삶'**이라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흥미롭게 엮어내고 있다. **학계와 언론은 <인생의 의미>를 허무와 교만을 넘어서기 위한 현대의 인생론으로 추천했다.**

#교양 #인문학 #서양철학 #서양문학

08

2017 여름호 vol.89

제3의 침팬지

재레드 다이아몬드

세계적 석학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진화인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역저에서 인류의 진화 역사를 냉정하고 날카롭게 통찰한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차이가 단 1.6%라는 생물학적 접근에서 출발해 인류의 탄생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진화학, 지리학, 식물학, 동물학, 고고학, 역사학**을 총망라한 재치 있는 설명과 다양한 예시로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인문학 #인류학 #고고학

09



09

10

2018 신년호 vol.91

역사학자 정기문의 식사

정기문

정통 역사학자가 음식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본 책이다. 그저 흥밋거리 위주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음식 7가지를 선정하여 그 기원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살펴본다.** 풍성한 에피소드와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아 디테일한 재미가 있으면서도, 수천 년의 시간을 핵심 소재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필력과 구성으로 목직한 삶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역사학자 #인문학 #역사 #음식

09

2017 가을호 vol.90

고전 결박을 풀다

강신장

동서양 필수 고전 30권을 엄선했다. 담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줄거리 소개에 공을 들여 원작의 맛을 충실하게 재현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축약이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새 작품을 구성하듯이 책의 줄거리와 핵심 내용에 심혈을 기울여 담았다. 그리고 책 속의 명문장 혹은 하이라이트 장면을 따로 소개하여 독자가 원작의 감동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평론에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고전이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통찰했다. **#인문학 #책읽기 #글쓰기**

10



11



11

2018 봄호 vol.92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법륜스님이 금강경에 대해 여러 차례 법문한 것을 모으고 다듬어 새롭게 엮었다. 대중들과 나눈 문답, 스님이 수행생활을 하며 겪었던 일화 등 지금 내 삶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를 통해 살아 숨쉬는 경전이 되게 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새롭게 변해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륜스님 #금강경 #종교 #역학 #불교

12

2018 여름호 vol.93

라틴어 수업

한동일

이 책은 **라틴어의 체계, 라틴어에서 파생한 유럽의 언어들을 시작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 사회 제도, 법과 종교 등 오늘날의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 또한 저자의 유학시절 경험담, 좌절과 어려움, 피할 수 없었던 관계의 문제, 자신에 대한 성찰 등 삶에 맞닿아 있는 화두가 녹아 있어 단순한 라틴어 강의가 아닌 종합 인문 교양서에 가깝다.

#가톨릭사제 #한동일교수 #라틴어 #교양 #인문학



12



13



14



15

14

2019 신년호 vol.95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유발 하라리

인류의 시작과 끝을 추적하고 가능해보았던 저자가 갈림길에 선 인류를 향해 던지는 엄숙한 제언. 저자는 각각 주제가 다른 21개의 글을 흥미진진한 사례를 통해 독자들을 통찰력의 세계로 인도한다. 특히 책의 뒤쪽에 수록된 ‘한국 독자를 위한 7문7답’에서 **140자 트윗이나 1분 짜리 고양이 유튜브 동영상**을 스치듯 훑으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는 데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문학 #문명사 #사회학

13

2018 가을호 vol.94

지금 힘들다면 장자를 읽어라

장자

중국 전국시대 철학자인 장자는 이 책을 통해 무아와 무위의 삶에 대하여 말한다.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변화에 순응하면서 자신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는 유연한 처세법**을 던지시 일러두고 있는 것 어지러운 난세 속에서 혹은 역경에 처했어도 쉬이 명성을 좇지 않고 덕행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장자 #인문학 #동양철학 #고전사상

15

2019 봄호 vol.96

콘텐츠의 미래

바라트 아난드

바라트 아난드 교수의 집요한 연구와 통찰력이 빛나는 혁신적인 경영 전략서. 저자는 음악, 자동차, 냉장고 등 과거에는 디지털과 상관없을 것 같았던 분야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제품 그리고 기능을 ‘적절히’ 연결하는 융합의 힘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치의 재분배가 일어났을 뿐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적대적인 제로섬 관계가 아닌 것이다.** 바로 이 역학관계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문은 활짝 열려있다.

#경제경영 #기업경영 #마케팅 #세일즈 #트렌드



16



17

18

2020 신년호 vol.99

말센스

셀레스트 헤들리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CNN, BBC, MSNBC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방송사에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방송인으로 활동한 저자는 딱 잘라 이렇게 말한다. 말센스를 향상시키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나 선부른 충고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능동적인 듣기의 기술이다. **누군가와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먼저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계발 #인간관계 #협상 #설득 #화술

16

2019 여름호 vol.97

한국이 소멸한다

전영수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가 집필한 이 책은 **인구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그간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사회 변화를 읽어내고 경기 흐름을 전망해왔던 전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구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 측면의 전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청년, 중년, 노년이 겪게 될 생애의 변화**까지 알려준다. #경제경영 #경제학 #경제정책 #비평

17

2019 가을호 vol.98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야마구치 슈

누구나 한 번쯤 철학을 공부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대 철학자들의 고리타분한 주장 앞에서 좌절한 추억이 떠오른다면, 이 책을 탐독하길 바란다. 이 책은 지적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철학적 사유가 삶과 비즈니스에 ‘혁신’을 가져다 줄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다. 본질을 꿰뚫고 최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철학적 사고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일 것이다. #인문학 #교양 #철학



18

이수가족 한마음 대축제를 맞아

여름의 생동감이 느껴지는 오늘 하루, 이수가족의 뜨거운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직장동료 간의 우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 간의 사랑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수그룹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해마다 놀랄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룹이 세계 일류기업이라는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만큼, 행복한 웃음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속한 팀과 회사를 위해, 건강한 땀방울을 흘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응원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IN
SIDE

2012
여름호
vol.69
p. 4~5

권두칼럼



권두칼럼은 꼭지명 그대로 사보의 책머리에 실렸던 1페이지 혹은 2페이지 분량의 짧은 글이다. 김상범 회장과 이수그룹 계열사의 여러 대표이사가 필자로 나서 시사성 짙은 비평은 물론 동서양의 철학, 삶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그룹 안팎의 이슈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권두칼럼은 드물게 장수한 콘텐츠이기도 하다. 1996년 발간된 통권 2호에서 시작되어 무려 17년 동안 이어져 다다 지난 2013년 가을호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갔다.

이수페타시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기부 진행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3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 대구지사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성금은 마스크, 세정제, 비상식량 등 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감염 예방 및 구호 물품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사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근무제 실시와 전 임직원에게 대한 상시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체 방역 시행, 비상 보고 체계 가동 등 자체 확산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수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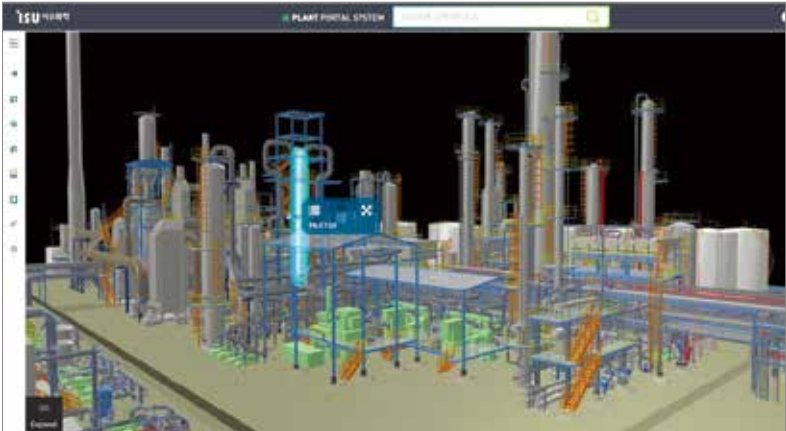
아산 탕정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주



이수건설은 지난 1월 9일, 아산 탕정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지하 4층~지상 10층의 오피스텔은 1개동 연면적 17,130여 평 규모로 오피스텔 844실, 색션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이수건설은 지난 2월 5일 평택상공회의소 회관 신축공사 도급계약도 체결했다. 평택 지역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조성, 평택고덕 국제신도시 개발 등 지역경제 성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수시스템

화학플랜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견인 특허 취득



이수시스템이 지난 3월 11일, '레이저 스캔 기반 도면 정보를 활용한 플랜트 관리 방법 및 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다. 특허 기술이 적용된 분야는 플랜트포털시스템 '커넥티드 OM'으로 화학플랜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본격 대응할 방침이다. 3D 스캐닝을 통한 역설계 기반 플랜트포털시스템은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설비를 실물처럼 들여다볼 수 있고, 설비교체 및 변경작업 진행 이력을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다.

이수앱지스

이석주 대표이사,
매일경제TV 출연



이석주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6일, 매일경제TV <증시 오늘과 내일>에 출연했다. 이석주 대표이사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세 개 제품의 자체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 항체 신약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항암 항체 신약으로 개발 중에 있는 ISU104를 시작으로 새로운 항암 치료 방법의 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담은 시청자들에게 ‘항암 항체 신약 개발 기업’으로서 이수앱지스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이수엑사캠 1

공원 환경미화 활동 및
현대오일뱅크 공장 견학



이수엑사캠은 지난 1월 10일,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몽마르뜨언덕 공원에서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환경미화 활동 후에는 파트너사인 현대오일뱅크 공장 견학에도 나섰다. 임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뿐 아니라 중요 파트너사의 생산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전개될 비즈니스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수엑사캠 2

중국 고객사와
상호 마스크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중국이 곤란을 겪고 있던 지난 1월, 이수 엑사캠은 중국 현지 고객사를 위해 총 2만여 장의 의료용 마스크를 전달했다. 마스크를 전달 받은 중국의 고객사들은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국경을 넘어선 뜻깊은 교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월 한국 내에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중국 고객사인 난주석화에서 마스크 2천 장을 이수엑사캠에 보내와 상호간의 돈독한 우정을 보여줬다.

이수창업투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이수창업투자는 지난 3월 24일, 이희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근속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올해로 스무 살을 맞은 이수창업투자의 신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결의와 결속을 다지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수C&E

따사로운 봄, 다채로운
영화로 관객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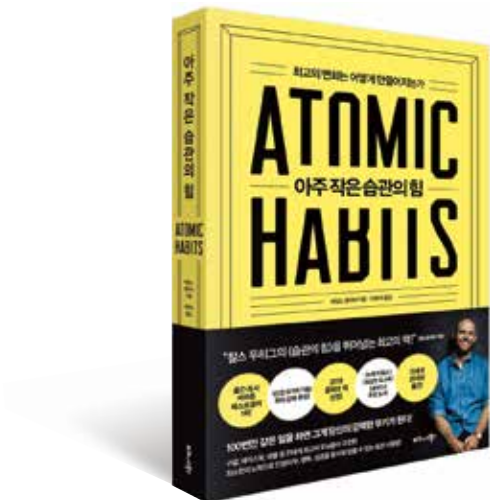


이수C&E는 아카데미 수상작인 <스포츠라이트> 제작진의 충격 고발 실화 <다크 워터스>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장르의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프랑스 누벨바그의 아이콘 '장 뢰 고다르'의 작품세계와 사랑을 그린 <내 멋대로 해라: 장 뢰 고다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트랙스를 연기한 '데ιβ 바티스타'와 마블 제작진의 코믹 버스터 <마이 스파이> 그리고 전설의 포켓몬 '뮤츠'가 등장하는 <극장판 포켓몬스터 뮤츠의 역습 EVOLUTION> 등이 이어진다.

최고의 변화는 꾸준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 자 제임스 클리어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

좋은 습관을 저축으로 비유하면 복리에 해당된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좋은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그 결과는 곱절이 되어 불어난다. 하루,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는 아주 작은 차이로 느껴질지 몰라도, 몇 달이 몇 년이 되면 그 영향력은 인생을 뒤바꿔 버릴 만큼 어마어마해진다. 5년 후, 10년 후를 상상해보자. 좋은 습관의 힘과 나쁜 습관의 결과는 현저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



고교시절 촉망받는 야구선수였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연습 중 동료의 야구 배트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안면 뼈가 30개로 조각났고, 왼쪽 눈이 튀어나와 실명 위기까지 왔을 뿐 아니라, 심장지가 세 번이나 일어나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곁을 수조차 없었던 저자는 절망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을 찾아 실천하기로 마음먹는다. 그 후 제임스는 매일 꾸준히 걷기 연습을 해서 6개월 만에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6년 후에는 대학에서 최고의 남자 선수로 불리기에 이른다.

제임스는 이러한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인생의 밑바닥 같은 좌절에서 구해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로 변신했다. 이 책은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더불어 생물학, 뇌과학, 심리학과 관련된 최신 연구 결과를 집약해서 습관 하나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만약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새해부터는 운동을 시작해야지'라는 결심을 했을 때 저자는 이 목표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결심이 분명해야 하고(제1법칙), 매력적이어야 하며(제2법칙), 쉬워야 하고(제3법칙), 만족스러워야 한다.(제4법칙) 새해에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은 이 법칙에 단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는다. 진심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바로 이 네 가지 법칙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빠르면서도 효율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알려준다. 금연은 물론 다이어트에서 탁월한 비즈니스 성과까지,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심하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코너 추천도서는 향후 이수그룹 러닝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톡·톡·톡
사이다
상담소

이수인들의 속 시원한 카운슬링

세상이 온통 초록빛 생명력으로 가득한 새봄이 시작
되었어요 마음까지 싱송송한 이 계절, 직장 혹은 사
회나 가정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 드립니다. 때로는 선배가, 때로는 동료와 후배가
해결해주는 알쏭달쏭한 고민들 톡·톡·톡 사이다 상담
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수 가족을 위한 상담소의 문
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집밥이
그리울 때가 많은데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추억 가득한 특별한 요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영관 과장(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이우성 대리(이수화학 신규사업팀)

2010년 7월, 포천에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인 생활 속에서 가족이 무척이나 보고
싶었죠.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가족들의 면회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먹고 싶어?”
라는 질문에, 저는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 주시던 “국물 있는 불고기”라고 대답했어요. 군대에서는 유독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가 생각난다는데 저는 가족과 함께 먹던 음식이 생각났던 거죠. 그중에서
특히 ‘엄마표 불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면회 오신 어머니께서 음식을 탁
자에 펼쳐 놓으셨는데, 그중에서도 불고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3시간이나 달려와야 하
는 먼 거리임에도 불고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불고기 국물을 한 입 뜨자,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몽글해지는 걸 느꼈어요.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에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가끔씩 사회인이 된 지
금도 그 날 먹었던 어머니의 불고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임종민 대리(이수페타시스 재경팀)

재테크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현황, 수급, 시점 등에 따라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투자가 최악이 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로 월간과 연간 목표 저축액을 설정하고 계획에 따라 지출을 해서 재테크를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목표 금액을 분명히 정한 뒤 저축해야 하는데, 보통 자신의 수입은 알고 있어도 지출내역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저축은 손실이 없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해야 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익과 손실 수준을 예상하여 투자의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칫 심리적인 불안으로 인해 그릇된 판단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몇 달 유례없이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증가하였습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재테크에 관심은 많지만 경험이 많지 않아 선뜻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김혜진 대리(이수시스템 ERP사업팀)

Q

자기 계발 목표가 너무 많다보니 저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진우 사원(썬이수 HR팀)



양하늘 대리(이수엑사보드 NPI파트)

자기 계발은 업무의 연장선이 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기 계발이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목표 설정 단계에서의 막막함으로 인해 자기 계발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미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친 고민과 우려를 하기에는 이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농구 관람을 무척 좋아하는 제 친구는 아마추어 농구 심판 자격증을 뒀고, 유튜브 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또 다른 친구는 현재 영상편집과 포토샵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 계발이 반드시 어렵고 힘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취미처럼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 하고 싶은 일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답니다. 부디 이처럼 즐거운 자기 계발을 찾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수애피즈 국내사업팀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한 드림팀

이수애피즈 국내사업팀은 지난해 희귀유전 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주’의 점유율을 크게 신장시키면서 해당 의약품에 시장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러한 성과는 사람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체 팀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일구어낸 성장인자라 더욱 고무적이다. 리더의 권한과 팀원의 정보가 황금비율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팀. 봄벌처럼 화사한 미소를 가진 이수애피즈 국내사업팀의 멤버들을 만나보았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용윤 팀장, 김태중 차장, 한상혁 과장, 조영익 차장, 김영일 과장, 심승섭 과장, 김영욱 과장, 현지수 과장, 김지은 과장



이수애피즈 국내사업팀은 국내 주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고객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다. 주요 업무는 시장 환경과 거래처 분석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고객과의 관계형성 그리고 거래처 방문 등 전반적인 영업활동이다. 이들은 의약 정보 전달자로서 질환과 제품 그리고 경쟁 의약품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정확한 의약 정보



팀원들은 제품이 고객과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이수앱지스 국내사업팀은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臨床)의 진료 만족도를 높이고, 환자에게는 치료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성과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희귀유전 질환 치료제를 시장에 안착시키다

이수앱지스 국내사업팀은 지난해 선천성 희귀유전 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주'를 관련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파바갈주'는 파브리병의 효소 대체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희귀 의약품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많은 환자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30명의 파브리 환자들 중 아사 '파바갈주'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는 21명에 달한다. 해당 병원에서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파바갈주'는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사업팀 매출

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파바갈주' 매출 목표가 올 한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창사이래 전문의약품 1품목으로 100억원 이상 매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내사업팀은 서울아산병원 소아과 유한옥, 이범희 교수와 신경형 고셔병 환자에게 '애브서틴, 암브록솔을 병용 투여한 연구자 임상'을 약 5년간 진행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2019년에 '신경형 고셔병(nGD; neuronopathic Gaucher Disease) 환자 대상의 애브서틴과 암브록솔 병용임상(Pharmacologic properties of high-dose ambroxol in four patients with Gaucher disease and myoclonic epilepsy)'이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Medical Genetics'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애브서틴'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국내외 희귀질환 전문가들에게 입증해냈다.

고객과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은 제약산업에서 영업사원을 부르는 호칭이 점차 바뀌는 추세다. 과거에는 판매에 역점을 두어 제약영업사원이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판매뿐 아니라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의약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대두됨에 따라 의약정보 담당자(Medical Representative, MR)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이수앱지스 국내사업팀의 구성원들에게는 고객에 대한 열정,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의약 정보 제공과 인간관계에 충실할 수 있는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다. 제약 마케팅 및 영업은 제품에 대한 단순 설명보다는 처방하도록 설득하는 사람이기에, 주요 고객인 의학전문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팀원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고객과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일에

대한 자부심 또한 분명해야 한다. 이수앱지스 국내사업팀은 고객이 제품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것은 물론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만족감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큰 보람도 느끼고 있다.

성공의 비결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조직문화

물론 다양한 성향의 고객과 만나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어려운 점도 적지 않다. 특히 고객과의 만남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과 마주할 때는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이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극복해야 한다. 평소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관계 형성 과정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야말로 제약 비즈니스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다. 전국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이수앱지스 제품들을 포지셔닝하고 팔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는 능



력은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수앱지스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성과를 이끌어낸 비결은 바로 여기 있다. 이를 위해 이수앱지스 국내사업팀은 서로간 사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적

극적인 권한 위임을 실행하고 있다.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규칙을 깨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리더의 권한과 팀원의 정보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팀이야말로 이수앱지스 국내사업팀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Leader's Message

이용윤 팀장(이수앱지스 국내사업팀)



우리 팀을 이끄는 가장 큰 가치는 사람입니다. 물리학을 예로 들었을 때 힘은 에너지의 이동으로 정의되는데요. 단위시간당 작업량을 나타내는 일률의 단위인 와트(Watt)가 높을수록 더 많은 전기가 빛과 열로 바뀌고, 더 강력한 전구가 됩니다. 팀장과 팀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실제 업무를 하는 팀원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면 상호 신뢰도가 높아져 견고하면서도 사람 냄새 나는 유연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조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100여 개의 종합병원을 방문하면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임해주는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고생한 결과가 지난해부터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팀원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더불어 그 벽돌들이 쌓여 거대한 성곽을 이루는 순간, 그 기쁨의 축배를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바라봅니다.

이수타그램



박문순 사원(이수시스템 HR사업팀)



들녘의 꽃처럼 아름다운 봄을 꿈꿔요

어느덧 따듯한 봄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꺼운 외투를 옷장에 정리해 놓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꽃구경 또는 소풍을 갔을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다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답답한 마음에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무심코 내뿜게 된 기침 한 번에 서로를 경계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암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고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며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절은 오고 꽃은 피듯이 어디선가 반드시 희망이 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희망 #기쁨 #봄봄봄 #꽃봄



박정빈 대리(이수화학 품질관리팀 실험2파트)



은하수 별빛이 펼쳐지는 십리대숲 산책

울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공업도시일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말로 '노잼도시'로 통하는데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울산은 태화강공원, 대왕암공원, 울산대공원, 십리대숲 등 예쁜 볼거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는 태화강 공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이 되어 더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십리대숲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퇴근한 뒤 아내와 함께 십리대숲 산책에 나섰습니다. '어두워서 볼게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며 도착했는데 숲에 들어서는 순간 "우와"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사랑의 은하수 길'을 따라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은하수를 닮은 이 신비로운 풍경을 꼭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죠.

#사랑의은하수길 #울산태화강 #십리대숲 #놀러오세요!

독자 여러분의 사진을 받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 곁엔 놓치기 가까운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담긴 행복하고 의미있는 순간들을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사보에 실리는 행운과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카카오톡 ID : lhg764 / 이메일 : q.hyun@isu.co.kr

OUT
SIDE



약藥이 되는 건강한 제철음식 ‘JMT’ 봄맞이 점심 메뉴를 추천합니다!

동서남해안에서 잡히는 해산물의 속살이 여물어 가는 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다. 주꾸미는 향긋한 미나리와 함께 봄의 향기를,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은빛 멸치는 회무침이나 자박하게 끓여 찜에 곁들여 먹는 재미가 있다. 또한 강하구에서 잡히는 풍천장어는 여름을 대비해 먹어주어야 할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으로 명성이 높다. 이 계절에 잡힌 제철 먹거리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까지 좋아 그야말로 몸에 좋은 약(藥)이 밥상에 오르는 셈이다.

향긋한 미나리와 함께 맛보는 ‘봄 주꾸미’

5월은 산란기가 막 지난 주꾸미의 속살이 여물어 가장 맛있는 시기다. 이 무렵 주꾸미는 봄철 대표 먹거리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낙지와 함께 문어과(文魚科) 연체동물을 대표하는 주꾸미는 천연 피로 회복제로 불리는 타우린을 다량 함유한 먹거리. 주꾸미는 산란기를 앞두고 몸에 잔뜩 살을 찘은 상태라 풍성한 한상차림을 기대해 볼만하다. 여름으로 접어들면 주꾸미의 살이 질겨지며 맛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5월 중순 전에 맛보는 것이 좋다.

이맘때면 대도시 인근 식당가에서 주꾸미를 점심메뉴로 내놓는 집들이 많다. 그러나 싱싱한 주꾸미를 맛보고 싶다면 아무래도 산지로 직접 찾아가는 편이 좋다. 주꾸미는 갯벌이 분포하는 서남해안의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고흥 등지에서 주로 잡힌다. 그중에서도 충남 서천 마량항은 이름난 주꾸미 산지이면서 5월 초까지 동백꽃이 피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갈고리 모양으로 튀어나온 지형의 특성 때문에 서해에서는 드물게 일출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멸치



청정 바다 남해의 반짝이는 생명력 ‘멸치’

새봄의 남해안은 제철 멸치잡이로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친다. 멸치잡이 배들이 그물을 털기 시작하면 멸치들이 아침 햇살에 은빛으로 반짝인다. 이 무렵에 잡히는 멸치는 특별히 ‘봄멸’이라 부르는데, 청정한 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봄멸을 새콤달콤한 초고추장에 무쳐 먹는 멸치회 무침이나 자박하게 찌개처럼 끓여 쌈채소에 싸먹는 멸치쌈밥은 지금이 가장 맛있을 시기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부산 기장, 통영과 함께 멸치의 산지로 유명한 고장이다. 멸치는 잡히면 곧 죽기 때문에 멸치회무침은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 어려운 음식. 반면 멸치쌈밥은 상대적으로 덜 신선해도 되는 까닭에 도시에서도 맛볼 수 있는 곳이 제법 많다. 남해군을 찾을 요량이라면 삼동면 지족마을이나 미조항을 찾아가면 멸치회무침을 맛볼 수 있다.



풍천장어



빨라진 여름, 풍천장어로 준비해요

장어는 육질이 우수해 식감이 좋고 비타민A,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 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민물에서 살던 장어는 산란기가 되면 먼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그러나 장어는 바닷물에 적응해야 하는 탓에 곧장 바다로 나가지 않고 강물이 바다와 만나는 강 하구에서 머물게 된다.

밀물 때 해풍이 육지 쪽으로 불어오게 마련인데, 이 강 하구 일원을 가리켜 풍천(風川)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잡히는 장어를 풍천장어(風川長魚)라고 부르게 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요즘은 양식장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산 장어를 맛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양식이라고 해서 맛에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종이 사보의 미래, 콘텐츠에 달려있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보의 본질이자 존재의 이유다. 우리는 사보를 통해 동료들과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고 선배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이수그룹 사보가 창간 이후 100호 발행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처럼 사람 중심의 소통이 사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종이 사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사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글_ 유정서(한국잡지교육원 전임교수)

학창시절 서점에 나가 구독하던 잡지가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몇 시간이고 기다리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 코끝에 아릿하게 풍겨오던 종이와 잉크 냄새는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추억이 아닐까. 어떤 날은 잡지가 끝끝내 도착하지 않아 허탕을 치기도 했지만 서점 주인의 눈치밥을 먹으면서도 곳곳하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지금의 30년 출판 인생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보의 봄날, 다시 올 수 있을까?

초고속 기가비트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과 모바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종이로 만든 책과 잡지 그리고 사보를 접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뜻하지 않게 원격 수업의 도래가 앞당겨지면서 아이들의 교과서 또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한 디지털 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종이 위에 새겨진 활자의 따스한 질감이 상정하는 책들이 디지털 패러다임에 밀려나고 있는 형편이다.

대표적인 활자매체의 하나인 사보의 형편도 크게 다를 리 없다. 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사보는 2000년대 초부터 매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이제는 사보를 발간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독자가 종이 사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보의 역사에도 무엇도 부럽지 않은 '봄날'이 있었다. 사보의 전성기였던 20여 년 전에는 사내보의 인기도 대단했지만, 특히 잘 만든 사외



보의 인기는 웬만한 잡지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였다. 무가 잡지의 한 종류로 취급되던 사보가 그 무렵엔 잡지와는 또 다른 독립된 매체 영역을 형성하기도 했다. 생각해 보면 그리 오래 전의 일도 아닌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만큼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팔랐던 것이다.

종이매체는 과연 디지털 미디어에 밀려났을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과 확산이 활자매체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일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 부러지게 그렇게 확신할 만한 뚜렷한 증거 또한 없다. 한 매체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가 극성기에 다다른 시기인 2014년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2018년까지 활자 잡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인터넷신문, 웹진, e-book 등 디지털 미디어들의 신장세가 아직까지는 그리 대수롭지 않을뿐더러 사업의 규모나 수익성도 활자 잡지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편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만약 디지털미디어의 도전으로 활자매체가 위축되었다면 디지털 매체는 엄청난 호황을 누려야 할 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디지털 미디어가 활자매체의 가장 큰 적은 아니라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활자매체의 총아인 잡지는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선보이기 시작해 19세기, 특히 1800년대 미국을 중심

으로 대중화에 성공한 매스미디어의 하나이다. 한마디로 활자시대의 총아로 무려 300년 이상 전성기를 구가한 매체이다.

이 매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온 것은 새로운 매체의 도전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라디오, TV, 홈비디오 등 수많은 뉴미디어가 등장했지만, 잡지의 위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잡지의 이러한 저력은 다름 아닌 그 자체가 지닌 매력, 특히 활자매체만이 지니는 고유의 장점과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테면, 디지털 매체가 좀처럼 따라오기 어려운 에디토리얼 디자인 특유의 미감, 독자의 독서 리듬을 감안한 정보의 조밀한 배열,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 소유 형태 등은 다른 미디어들이 따라올 수 없는 활자매체, 특히 잡지 스타일 매체만의 장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활자매체는 여전히 씩씩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 지난 2006년 빌 게이츠는 활자매체의 수명이 5년 정도 남아있다고 전망했지만, 그 5년의 몇 배가 지난 지금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활자매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문제는 콘텐츠, 콘텐츠가 희망이다.

그렇다면 활자매체의 급격한 쇠락의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중들의 정보습득 루트와 정보의 가공 형태가 말할 수 없이 다양해진 탓이다. 미디어의 종류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미디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정보의 형태나 정보를 접하는 스타일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의

개막으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있다. 일방적인 전달에서 쌍방향으로, 일대일로만 가능하던 소통이 일대 다수, 다수대 다수로 바뀌고 정보의 형태도 과거에 비해 다변화 하고 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손맛 하나로 승부하던 단출한 떡볶이 시장에 기계 떡볶이, 퓨전 떡볶이, 서양 떡볶이 등 온갖 떡볶이 장사들이 들어와 소비자와 소비형태를 분산시킨 격이다.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장사가 될 턱이 없다. 디지털 미디어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지만, 활자매체만큼이나 디지털 매체도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길은 활자매체나 디지털 매체나 모두 똑같다. 바로 정보산업의 기본을 바로 보는 일이다. 미디어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미디어는 변하게 마련이다. 술은 바가지





에 담기든 컵에 담기든, 술잔에 담기든 똑같은 술이다. 술이 콘텐츠라면 바가지나 컵이나 술잔은 미디어에 해당한다. 미디어는 바뀌어도 콘텐츠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술맛만 좋으면 술을 담는 용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변화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어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든 변치 않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콘텐츠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 활자매체 계에도 이러한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종이매체를 접고 디지털미디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내용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독자들의 다양한 개성에 어필하는 독립매거진이 속속 등장하는가하면 서점 일변도의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루트를 모색하는 등 콘텐츠의 강화를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사보의 운명이라고 이와 다를 리 없다. 앞서도 말했듯이 사보는 어떤 매체도 쫓아올 수 없는 사보만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 기업의 정신을 잠재적인 외부의 고객들과 공유하고 기업의 울타리 안에 있는 같은 식구끼리는 사내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따뜻한 우정과 든든한 동지애를 키워가는 것은 어떤 매체로 대신할 수 없는 사보만의 장점이다. 여기에 디지털 미디어로는 대체할 수 없는 활자매체 특유의 매력이 더해진다면 종이사보의 앞날은 결코 어두울 리가 없다. 이수그룹의 사보가 어느새 100호를 맞았다고 한다. 세태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기업정신의 결과이자, 편집진의 고뇌어린 기획이 낳은 고품질 콘텐츠가 거둔 개가일 것이다. 사보의 앞날도 영원하고, 이수 사보의 앞날은 더욱더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

새봄에 떠나고 싶은 블링블링 핫 플레이스

‘숲 사이 철쭉이 가슴을 여는’ 5월이 찾아왔다. 생명의 기쁨이 온 산하를 뒤덮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누구든 옆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지는 계절, 초록빛 새봄의 풍경을 두근대는 마음에 고스란히 풀어 담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한다.

글 류재민(여행작가)

서산 개심사 왕벚꽃
제주 가파도 청보리밭
합천 황매산 철쭉

봄날의 꽃처럼 마음이 활짝 열리는 절
서산 개심사 왕벚꽃

서산으로 떠나는 여정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 바로 상왕산 자락의 고찰 개심사(開心寺)다. 특히 오월 이맘때면 개심사 경내 곳곳에 심어진 토종 왕벚나무가 마치 사랑을 주렁주렁 매단 것마냥 풍성한 겹벚꽃을 피우며 상춘객을 불러 모은다. 들녘과 구릉의 질어만 가는 초록빛을 감상하며 운산면 신창리에 접어들면 곧 개심사 주차장에 도착하게 된다.

개심사 왕벚꽃은 여느 벚나무들에 비해 열흘에서 보름 정도 늦게 개화를 시작한다. 꽃의 모양도 보통의 벚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꽃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피기 때문에 꽃송이가 훨씬 크고 색깔도 훨씬 다양하다. 가장 눈에 많이 띄는 색깔은 연분홍과 진분홍 겹벚꽃. 그밖에 백색과 청색 그리고 붉은색에 가까운 벚꽃도 있다. 특히 오묘한 녹두색을 띠는 청벚꽃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희귀한 벚꽃이라고 한다.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서산의 봄을 느껴요

해미읍성

해미읍성은 개심사에서 자동차로 불과 8km 거리에 불과할 정도로 가깝다. 조선시대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이자 왜구 노략질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시설이었던 해미읍성은 성곽 주변에 탱자나무를 많이 심어 탱자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천주교 성지인 읍성 내부 회화나무 옆에는 옥사와 초가를 지어 체험거리도 만들어 놓았다.

충남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143



간월암

서산A방조제 북쪽 끝자락의 작은 암자. 태조 이성계의 왕사(王師)였던 무학대사가 조선 초에 창건했다고 알려진 암자로 썰물 때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지만 밀물 때는 줄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간월암(看月庵)이라는 편액이 걸린 법당 옆에는 커다란 팽나무 한 그루가 우람한 풍모를 과시하며 서 있는데 수령이 무려 45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1길 119-29

안면도 꽃지해변

꽃지해수욕장이 안면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오월에는 이 꽃지해변에 화사한 유채꽃이 만개하여 일 년 중 가장 특별한 풍경을 연출한다. 유채밭은 꽃지의 명물 할미할아비바위 바로 앞에 해안선을 따라 조성돼 있다.

충남 태안시 안면읍 꽃지해안로 400



휴식 같은 섬에 일렁이는 초록빛 물결
제주 가파도

제주 서남쪽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섬 안의 섬 가파도는 보리밭의 초록빛 물결이 넘실대는 이국적인 장소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정겨운 돌담길 따라 거닐다가 아무 곳에도 털썩 앉아 쉬어가도 좋은 힐링 아일랜드. 풍랑 주의보가 내리는 날에는 섬 전체가 파도에 휩쓸려 버릴 것처럼 위태롭지만 높은 언덕도 경사진 길도 거의 없어 누구라도 걷기 좋은 산책의 섬이기도 하다.

청보리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4~5월 무렵 송악산이나 모슬포 방면에서 바라본 가파도는 온통 수채 물감으로 칠한 것 마냥 투명한 초록빛으로 가득하다.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 가파도 청보리는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가파도의 명물인 청보리밭을 감상하고 싶다면 6월이 되기 전에는 다녀가야 황금빛 들녘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모슬포항에서 여객선 이용

제주의 봄을 느껴요

우도와 서빈백사

제주에 속한 섬들 중에 가장 큰 섬인 우도에는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한 산호 백사장으로 알려진 서빈백사(西濱白沙)로 유명하다. 그러나 소가 누워있는 모습 혹은 소가 머리를 내민 모습을 닮았다하여 우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섬에서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풍경은 역시 우도봉 일대 자연경관일 것이다.

📍 제주시 우도면 ※성산포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이용



지미봉과 성산일출봉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주 전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망을 자랑하는 명소다. 정상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압권. 특히 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다와 그 비취빛 물 위에 비스듬하게 누운 우도 그리고 우뚝 솟은 성산일출봉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인근에 제주 해녀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낸 해녀박물관도 있다.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 3-1



수월봉과 차귀도

제주 서쪽 한경면 고산리에 솟은 봉우리로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오름으로 꼽힌다. 높이가 해발 77m에 불과하지만 차귀도를 비롯해 죽도, 당산봉 등 제주 서부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수월봉 아래 절벽지대도 놓쳐서는 안 될 볼거리인데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절벽이 '화산학의 교과서'로 불린다.

📍 제주시 한경면 노을해안로 1013-70



• 자동차 타고 오르는 자주빛 산상화원
합천 황매산 철쭉 •

여행개나 다녔다고 자부하는 상춘객들은 이 계절에 반드시 들러야 할 경남 합천군의 명소로 황매산(黃梅山)을 꼽는다. 황매산(해발 1,108m)은 합천의 명산인 가야산과 함께 소백산맥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산으로 5월 철쭉 군락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산상화원이다. 황매산 주봉을 기준으로 완만한 남쪽 사면을 따라 펼쳐지는 철쭉밭은 이 시기에 온통 자주빛으로 물들어 봄을 기다리는 가슴을 두방망이질 한다. 황매산의 가장 큰 장점은 8부 능선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을뿐더러 등산로 일부는 목조 탐방로가 깔려 있어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일도 가능할 정도다. 힘들게 정상을 목표로 산행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은 꽃나들이 장소가 전국에 또 있을까.



◉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공원길 331

합천의 봄을 느껴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명찰이다. 산세가 수려하기로 소문난 가야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풍경이 아름답기로도 따를 곳을 찾기 어렵다. 일주문을 통과하면 시작되는 울창한 숲길에는 아름드리 고목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어 장엄한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오도산

가야산 남쪽 끝자락에 매달린 오도산 역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자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명소다. 사진가들의 일출 촬영 포인트로 잘 알려진 오도산은 정상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자동차로 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임도의 특성상 길이 좁고 경사가 가파른 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경남 합천군 오도산휴양로 393-1

고령 지산동고분군

합천 동쪽에 이웃하고 있는 고령군은 합천, 거창, 의령 등과 함께 고대사의 중요한 축이었던 대가야의 도읍이다.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서 발견된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지의 하나로 고분군으로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고분군을 둘러보기 전에 바로 옆에 자리한 대가야박물관(www.daegaya.net)에도 둘러보자.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 23-1



김연아에서 펭수까지

2010년대의 컬처 키워드 10

2010-2019

‘김연아’로 시작해 ‘펭수’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기록되었을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키워드를 통해 각각의 단어와 인물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사회현상 등으로 문화계 전반의 흐름을 되짚어 본다. 키워드를 통해 2010년대를 돌아보고 나면 새롭게 시작된 2020년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이다.

글 : 윤선아(대중문화 칼럼니스트)



2010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2010년 2월26일 김연아 선수가 단상 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김연아 선수는 이미 여러 차례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성과로 인해 금메달 수상이 확실시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라는 점과 당대 최고의 라이벌로 꼽히던 아사다 마오와의 대결 같은 변수들이 존재했다. 결국 누가 더 단단한 정신력으로 실수 없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것인가가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됐다. 조지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 F장조에 맞춘 완벽한 예술에 가까운 프리스케이팅이 끝나고 김연아 선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피겨스케이팅에서 거둔 금메달은 스포츠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일이 되었다. 이 금메달은 김연아 선수가 스포츠 외교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shutterstock

2011

‘스티브 잡스’의 시대가 저물다

2011년 10월 5일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다. 2004년 발병 이후 오래도록 싸워왔던 췌장암이 그 원인이 됐다. 애플 컴퓨터를 개발해 보급한 스티브 잡스는 무엇보다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바일 세상을 선도한 인물이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 특유의 리더십과 창의성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어록과 독보적인 프리젠테이션 기법 그리고 검정 터틀넥과 청바지라는 패션 아이템까지, 스티브 잡스의 모든 것들이 주목받으면서 그는 IT업계는 물론이고 산업 전 분야 그리고 우리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2012

싸이 ‘강남스타일’ 글로벌 인기

2012년 7월 15일 발매된 싸이의 여섯 번째 정규 EP(Extended Play) 앨범 <싸이6甲 Part 1>에 수록된 ‘강남스타일’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30개국 이상의 공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급기야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2위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까지 했다. 싸이 특유의 B급 코드로 버무려진 뮤직비디오가 그 선풍적 인기의 핵심이었는데, 여기 등장하는 말춤은 전 지구적인 춤사위가 되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우리의 K팝이 빌보드 같은 팝의 본 고장 미국 본토에서도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한류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미국 뉴욕의 록펠러 플라자에서 공연하고 있는 가수 싸이의 모습

2013

‘먹방’ 전성시대

2013년은 먹방이 방송의 중요한 트렌드로 떠올랐던 해였다. 하정우 같은 톱 배우는 물론 윤하, 추사랑 같은 셀럽 자녀들의 먹방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음식 광고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아프리카 TV 등에서 시작되어 유튜브까지 저변을 넓힌 먹방은 해외까지 진출하며 심지어 ‘MUKBANG’이라는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기에 이른다. 먹방의 글로벌한 인기는 한국의 식품들을 세계에 알리는 매개가 되어주기도 했다.



인기 유튜버 햄지의 먹방 채널. 가장 인기가 좋은 콘텐츠는 무려 1,800만여 회를 상회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햄지

2014

드라마 '미생' 열풍

바둑 용어인 '미생'은 아직 대마의 삶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완생'이 되지 못한 이들의 처지를 공감하는 하나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드라마 <미생>은 직장인들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신드롬급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종합상사를 배경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삶을 사회 초년생 장그래의 시선으로 담아낸 이 작품은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되었으며, 문고로 출간된 동명의 서적은 드라마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판매량 200만부가 넘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미생>의 인기는 취업난과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인턴 같은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담아낸 현실적인 이야기 덕분에 기도 하다.



2014년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드라마 <미생> ©tvn

허니버터칩은 없어서 못 팔 정도의 대란을 일으켰다.



2015

'허니버터칩' 대란

2015년은 짭짤한 맛의 감자칩이 대세를 이루던 시장에 허니버터의 달달한 맛을 더한 허니버터칩이 대란을 일으킨 해로 기억된다. 유사 상품들까지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던 허니버터칩은 마트에 가도 '품절'이라 사먹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큰 인기를 끌었다. 심지어 품귀현상은 일부 점원들이 상품을 빼돌리거나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품 출고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물론 맛에 있어서 차별화된 것이 허니버터칩 열풍의 중요한 이유였지만, "없어서 못 판다"는 상품에 더 쏠리는 대중 심리가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했다.

2016

'유튜브'와 1인 크리에이터

지난 2008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1인 크리에이터의 성공담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커진 해였다. 초등학생들이 꿈는 미래의 유망직종이 연예인이 아닌 유튜버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였다. 1인 크리에이터가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구가하면서 유튜버가 되려는 이들이 급증했고, 유튜브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졌다. 최근에는 방송가에서도 앞 다퉈 유튜버를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을 본격화 하고 있을 정도다. 유튜버가 미디어의 헤게모니를 거머쥐면서 콘텐츠 산업의 판도를 흔들게 된 것이다.



유튜브는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를 근간부터 바꿔 놓았다

2017

'단짠단짠' 유행과 '올로'

단맛과 짭맛을 반복해서 먹는다는 의미인 '단짠단짠'이 트렌드로 등장한 해였다. 이미 허니버터칩을 통해 그 예고편을 보여주었던 단짠단짠이 2030의 입맛 트렌드로 자리하면서 관련 푸드 상품들이 대거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단짠단짠의 유행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초월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삶의 은유로도 사용되었다. 이른바 '단짠 드라마' 같은 표현이 그것이다. 달고 짭맛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드라마는 콘텐츠의 대중적 지향점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2017년이 주목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다. 올로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 대신에 지금 이 순간 즉, 현재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했다. 성공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은 적게 소유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요소들을 담고 있다.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대안적 선택인 것이다.

#YOLO
YOU ONLY LIVE ONCE!

단짠단짠과 올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키워드 ©shutterstock

2018 '방탄소년단'과 글로벌 팬덤

2018년에는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SNS 리트윗을 기록한 그룹으로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기록됐다. 2013년에 데뷔해 온 라인을 통해 글로벌 팬덤을 확장시킨 방탄소년단은 2017년 'DNA'로 빌보드 핫 100에 처음으로 진입한데 이어 2018년에는 <LOVE YOURSELF 結 Answer>라는 앨범으로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 최대 음반 판매량 보유,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 시상식에 퍼포머로 무대에 오르는 등 2018년은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눈에 보이는 기록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해였다. 이후 그들은 '21세기 비틀즈'라는 칭호를 얻고 2019년에는 영국 웹들리 스타디움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을 하면서 K팝으로 대변되는 K콘텐츠의 글로벌 팬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아티스트가 되었다. 방탄소년단이 만들어낸 한류의 이러한 흐름은 이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김은희 작가의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국제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K콘텐츠의 위상을 상징하는 사건들 중 하나로 기록되게 되었다.



2018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현장의 방탄소년단



2019 '펭수'와 '뉴트로'

2019년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캐릭터가 대세로 떠올랐다. 남극에서 온 거대 펭귄 '펭수'가 그 주인공. EBS 방영 프로그램인 <자이언트펭TV>에 등장한 이 캐릭터는 기존의 교육방송 캐릭터들과는 사뭇 다른 면모로 인기를 모았다. 펭수는 교육적인 캐릭터라는 한계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로 갖가지 상황 속에서 재치 있는 대응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방송사들을 넘나드는 대통합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다. 2019년은 '뉴트로'의 해이기도 하다. 유튜브 등의 영상 플랫폼을 통해 옛 가요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 탐골공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탐골 GD'로 불리며 국내로 강제 소환된 뮤지션인 양준일 신드롬 같은 뉴트로(New + Retro)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옛것을 가져와 현재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뉴트로에는 과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화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유행했던 복고풍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뉴트로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점에서 아날로그적 성격을 지닌 옛것을 합하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귀담아 듣는 독자엽서

사보 ISU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기사나 사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수 사우 및 가족들의 많은 염서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엽서 당첨자에게 드리는 선물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정확한 이름과 소속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소주택에 살고 싶은 꿈

겨절이 바뀔 때마다 발행되는 사보를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수의 픽 - 구해줘 홈즈'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를 벗어나 주택에 살고 싶은 꿈이 생겼는데, 협소주택에 살며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박은새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실험2파트 박정빈 대리 배우자)



각국의 먹거리를 꼭 맛보고 싶습니다

마이레알트립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각국의 대표 먹거리를 소개해 주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수테이블 코너에서는 이수인들이 숨겨놓은 맛집 혹은 알고 싶은 맛집도 소개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민성진 대리(이수화학 총무2파트)



처갓집이 제주라 더욱 반가웠어요!

이수타그램에 소개된 이흥권 사원의 한라산 여행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갓집이 제주라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사보에서 보니 더욱 반가웠죠. 그리고 이번 팀업뽕뽕에서는 심폐소생술 장면이 있던데 혹시 직장 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을 다뤄 주실 수는 없을까요?

김영관 과장(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직접 지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수의 픽 - 구해줘 홈즈' 코너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현재 은퇴를 하고 EBS 교재로 영어공부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자식 교육 다 시킨 후 시골에 귀농하면서 직접 집을 짓고 살고 있다 보니 더욱 공감되는 기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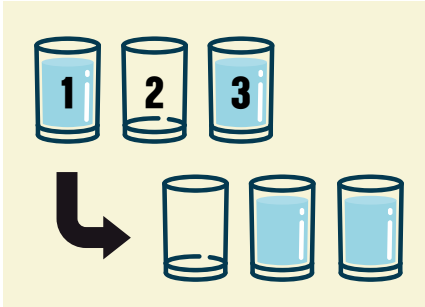
박무환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노항택 사원 장인)

이수 뇌색남녀를 위한 두뇌 트레이닝 QUIZ

※ 사보 <ISU>는 여러분의 창의력을 키워줄 퀴즈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Level 1

번호가 매겨진 3개의 컵 중 하나만 움직여 아래쪽 컵들과 동일하게 배열해 보라. 단 컵의 위치는 바꿀 수 없다.



Level 2

퍼즐 중앙에 물음표로 남아있는 빈칸의 숫자는 무엇일까?

8	3	4
1	?	9
6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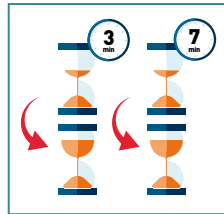
* 한 개의 퀴즈만 맞혀도 선물을 드립니다. 모두 함께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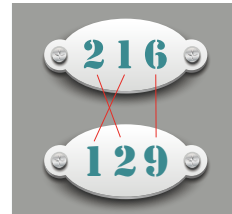
2020년 겨울호 당첨자

민성진 대리(이수화학 총무2파트)
박덕숙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김정환 기감 배우자)
권오연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실험2파트 홍정선 기정 배우자)
박무한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노항택 사원 가족)
박은새 님(이수화학 품질관리팀 실험2파트 박정빈 대리 배우자)
이상열 기감(이수화학 공무1팀)
김영관 과장(이수건설 플랜트기술팀)
이복구 사원(이수화학 안전환경1팀)
한경민 님(이수 AMC 시설팀 한명기 기사 자녀)

* 겨울호 정답



3분과 7분짜리 모래시계를
각각 1회씩 뒤집는다



129호, 129를 43으로
나누면 3

사보 ISU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솔한 생각과 마음이 담긴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름호 원고 마감은 6월 20일입니다.